

근대 소설의 내러티브와 픽션의 진리

-재현 불가능성과 보여주기 기법을 중심으로*

조미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내러티브와 보여주기 기법
3. 세계의 진실과 픽션 속의 진리
4.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753)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염상섭의 작품을 대상으로 근대소설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재현 불가능한 공백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showing) 기법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내러티브의 리얼리티와 재현 불가능 사이의 간극을 언어의 형식으로 환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가 세계를 재현할 때 필연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 공백은 보여주기(showing) 기법을 통해 재현의 장으로 환원된다. 보여주기는 언어의 내속적인 형식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소설의 내러티브에서 정보의 부재, 알 수 없는 생략과 편집 등으로 나타난다. 작품상에서 보여주기는 소설의 사실적 묘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생략과 공백에서 발생하는 서사의 균열이나 모순을 포괄하는 방법이자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축하는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염상섭 작품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인물의 본질에 대한 보여주기와 선(先)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비유적인 진술은 내러티브의 진행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발화에 의해 소급적으로 진실임이 확인된다. 진술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리얼리즘적 재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후적으로 구성된 내러티브에 의해 지탱된다. 이러한 소급성은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요약적 진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편집적인 진술은 의도적인 공백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부정적인 인물의 기원에 대한 재현할 수 없는 간극을 보여주는 언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집적인 진술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부재, 설명의 공백은 작품의 내적 인과성을 저하시키고 내러티브의 불완전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한정하는 형식이자 내러티브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보충하는 언어적인 환원이라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재현인 허구 세계의 존재 양상은 단순히 현실의 리얼리즘적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적인 인과성 안에서 구축된다. 실제 인물의 행위와 동기는 현실세계에서나 의미를 가질 뿐 소설 세계에서 재현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실제와 재현 사이의 간극은 현실세계와 허구세계의 근원적인 차이로 해명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리얼리즘적 묘사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픽션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현실세계의 진실과 허구적 진리 즉 사실적 진실과 픽션의 진리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영상섭, 근대, 보여주기, 픽션, 진리, 내러티브, 공백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염상섭의 작품을 대상으로 근대소설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재현 불가능한 공백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showing) 기법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것은 언어가 재현하는 내러티브의 리얼리티와 재현 불가능 사이의 간극을 언어적 형식으로 환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현실세계의 리얼리티를 가장 정교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묘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교한 묘사는 인물의 외관은 물론 내면세계와 그의 본질까지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밀한 묘사라 할지라도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소설은 영화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과 달리 오로지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만 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 재현과 재현불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언어의 형식으로 재현할 수 없는 간극에 대한 텍스트적 환원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화 할 수 없는 것, 즉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침묵1)”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재현할 수 없는 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참조점으로 작용한다. 왜 말할 수 없는 것에 침묵해야 하는가? 이러한 침묵은 다층적인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텍스트는 서사의 개연성과 완결성을 위해 리얼리즘적 재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데 재현할 수 없는 것, 재현 불가능한 것 역시 일정한 내적 형식을 통해 재현의 장으로 소환된다. 즉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언표는 이 언표를 실현할 수 있는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데 이 행위는 보여주기(showing)²⁾의 방식으로 해명될 수 있다. 보여주기는 언어의 내속적인 형식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소설의 내러티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왜곡

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역,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2006, 117면.

2)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 4.1212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명제를 마지막 명제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와 함께 읽는다면 말할 수 없는 것은 보여질 수 있다는, 즉 말하기의 형식 속에서/형식에 의해 직접 제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역,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64면.

이나 알 수 없는 생략, 그리고 그러한 이상한 반복들을 통해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³⁾.

소설의 담론에는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부분이 서로 교차하면서 드러난다. 보여주기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등장인물의 발화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언어는 정확하게 그 사건을 거울처럼 반영한다. 왜냐하면 사건은 언제나 언어를 통해 성립 하니까 말이다. 말하기의 가장 순수한 형태는 서술자에 의한 요약으로 이 형태에서는 서술자의 언어의 간명함과 추상성이 등장인물과 그의 행동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지워버린다⁴⁾.

일반적으로 보여주기의 단순한 형태는 인물의 발화나 사건에 대해 “거울처럼 반영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즉 서술자에 의한 말하기 (telling)가 아니라 장면(scene)을 통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상에서 보여주기는 소설의 사실적 묘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생략과 왜곡에서 발생하는 서사의 균열이나 모순을 포괄하는 방법이자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축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보여주기 기법의 기본적인 정의를 넘어서 기존의 개념을 초과, 보충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불확정성에서 소설적 미학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상섭 작품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담론에 대해 고찰하고 리얼리즘적 재현과 재현할 수 없는 공백에 대한 언어적 형식을 픽션의 진리측면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3) 묘사될 수 없는 것은 미학적인 형식 속에 그것의 기묘한 왜곡으로서 기입되어야 한다. ... 직접 말하거나 묘사될 수 없는 트라우마적 초과는 왜곡, 생략적인 반복들과 그 밖의 다른 왜곡들 속에서 ‘보여질’ 수 있다.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63~64면 참조.

4) 데이비드 로지, 김경수 역, 「소설의 기교」, 역락, 2010, 200면.

2. 내러티브와 보여주기 기법

염상섭 작품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인물의 내면을 알아차리는 단정적인 언술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과 죄』의 순영과 마리아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본질을 알아차린다. 마리아의 세련된 옷차림⁵⁾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인 순영의 순백의 옷차림⁶⁾과 대조가 되는데 이러한 장면의 보여주기는 두 사람의 관계와 내러티브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인물의 발화와 행동, 의상에 대한 보여주기는 이 인물들이 어떤 본질을 지녔는지에 대한 단정적인 진술과 결합하는데 이러한 인물의 묘사와 단정적인 언표행위는 내러티브가 진행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사실임이 밝혀지게 된다.

정마리아의 이력(동경음악학교 출신 음악가)에 대한 진술과 화려한 몸차림을 보여주는 장면은 서로 교차하며 부정적인 본질을 단정하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언표행위로 제시된다⁷⁾. 순영의 눈을 통해 마리아는 “기생퇴물이나 남의 첩 같은” 인물이라고 진술 되는데 이러한 언표행위는 진술되는 시점에서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했으나 내러티브가 전개됨에 따라 진실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순영에 대한 마리아의 응시⁸⁾

5) 마즌 편 창 미트로 노힌 등교의에는 창을 뒤로 지고 양장한 새아씨가 한 팔을 잡고 안겼다가 순영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조금 몸을 움츠리는 듯 한다. 그 옆에 조고만 탁자에는 녀자의 흰 맥고자가 노혀 잇고 그 옆에는 빨간 비단의를 한 양장책 한 권이 연옥색 손가방과 나란히 노혀 잇다. 아마 이것이 이 녀자의 몸치장감들인 모양이다.

염상섭, 『사랑과 죄』, 염상섭전집2, 민음사, 1987, 24면.

6) ……빳닥히 시름업시 바든 양산에서부터 발굽치까지 눈이 부실 만치 하야케 차린 여자는 뒤에서 덕진이가 쏘차가는 것을 눈치채엇든지 금시로 발을 짹싸게 놀리는 모양이엇다.

염상섭, 앞의 책, 15면.

7) ……순영이는 아까 마리아가 석왕사 일절을 쓰낼 세부터 못맛당하게 생각하고 잇든 터인고로 이러케 친철히 하야 주는 것까지 반갑지는 안햇섯다. 자기보다는 나이도 지긋하야 보이지만 아모리 보아도 기생퇴물이나 남의 첩 가튼 쏘악신이와 말버릇이 더러워 보이엇섯다. 올 봄에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할 제 신문사에서들 뒤썩들고 xx신문사 주최로 음악회를 열어 준다고 할 제는 가 보지는 못하얏스나 썩 인격 잇는 사람으로 알고 실상은 부러워서도 하얏든 것이다.

염상섭, 위의 책, 28면.

8) ……마리아의 눈에는 아모리 보아도 열 팔구 세썩밧게 아니 되는 솟계집아희 갖

도 어린 순영이 비록 귀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총명하고 순수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특히 “암만하야도 자기보다는 웃길 갖기도 하였다”라는 언표행위를 통해 마리아가 진술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실패와 몰락을 예측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인물의 본질에 대한 진술이 진실이 되는 것은 인물이 실제 어떠한 속성을 지녔냐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진술을 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⁹⁾. 즉 마리아의 타락성이 진실이 되는 것은 마리아의 타락한 본질에 대한 사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타락한 여성이라는 진술이 진실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다. 병렬적으로 순영의 순수성은 순영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순영이 순수하다는 진술을 진실로 만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인물의 본질에 대한 보여주기와 선(先)진술은 진술된 시점에서는 인과적인 내러티브에서 추상적인 형태로 남는다. 이러한 진술의 추상성은 내러티브의 진행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발화에 의해 소급적으로 진실임이 확인된다. 즉 첫 만남에서 서로의 본질을 알아내는 단정적인 진술이 진실이 되는 것은 파편화된 내러티브들을 소급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처음의 비유적인 진술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물과 상황에 대한 리얼리즘적 재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며 이것은 사후적으로 구성된 내러티브에 의해 인식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응시는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서 소급된 것이며 이러한 내러티브의 비선형적 왜곡은 파편화된 내러티브를 개연적이고 인과적인 흐름의 구조 속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타였스나 해춘이의 친고가될 만치 귀엽게 자라난 집 자식 갖지는 안하 보이였다. 다만 얼굴에 충기가 잇서 보이고 탐탁하게 생긴 모양이 상찌지는 안타고 생각하였슬 다름이다. 그러나 사람도 여모저 보이거니와 몸가지는 것도 제 밧탕이 잇는 지 눈서투르지는 안하 보이였다. 엇더케 보면 어린 틱와 귀염성스러운 맛이 암만하야도 자기보다는 웃길 갖기도 하였다.

염상섭, 위의 책, 28면.

- 9) …… 그러나 이것은 진실의 권위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다. 진실은 참된 명제들에 내재하는 특성이 아니라, 이 명제들이 진실의 위치에서 말해진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 진실 자체는 진술의 속성이 아니며 **진술을 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진실은 레디메이드 예술과 같다……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역, 『시차적 관점』, 마티, 2006, 303면.

다.

……마리아라는 계집은 엇더한 계집이냐? 류택수와의 관계가 제 말과 가티 단순히 돈거래에 쫓긴다고 누가 보증을 하라? 서양 부인 선교사의 수양딸로 학비를 어더 공부한 뒤에 눈 맞게 나서 씨돌아다니다가 경무국 사무관의 후원으로 미국을 갔다 왔다고 하지 안는가? 그는 고만두고라도 미천한 집 자식으로 중류 이상 정도의 생활을 하고 기생집 뒤편한 집치장을 하여 노코 혼자 들어 업대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생활비는 대관절 어대서 나오는 것이냐?¹⁰⁾

위의 인용문은 해춘의 시각에서 마리아의 내력이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 문단은 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부재와 공백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부정성을 짐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진술로 이루어졌다. 즉 마리아에 대한 충분한 잉여정보¹¹⁾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경음악학교 출신 음악가라는 마리아의 현재의 위치와 상황이 어떠한 지에 대한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요약적인 제시는 서술자에 의해 인물을 특정 부분만 편집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부재 즉 선행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읽을 수 있다.

마리아의 배경이 공백이며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 순영의 위상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품에서 순영의 내력은 가족 관계부터 관련인물들까지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 가족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과의 서사가 부재하고 현재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들과의 관계만이 설정되어 있어 관계의 단절이나 생략, 축약으로 인한 공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마리아의 개인서사가 순영의 서사에 비해 중요하지 않으며 작품에서

10) 염상섭, 앞의 책, 236면.

11) ……그러나 뛰어난 소설의 경우, 대개의 ‘잉여정보’에 대해서는 그 작품 해석에 있어 나름의 설명을 부여할 수 있는 듯 생각된다. (중략) 잉여정보는 작품에 탄력성을 주고 현실감을 가져온다. 즉 등장인물들이 엮어내는 세계는 기술된 본 줄거리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들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어떤 특정 상황으로서, 어쩌면 잉여정보로서 명기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

미우라 도시히코, 박철은 역, 『허구세계의 존재론 : 분석철학, '픽션'에 대해 묻고 답하다』, 그린비, 2013, 41~44면.

순영의 인물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작품상의 의도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인물이나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핵심정보와 잉여정보의 유무나 분량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근본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이 공백은 마리아의 숨겨진 내력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상상은 부정적인 인물의 형상과 결합하여 왜 타락한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적 인과성으로 진입할 통로를 차단시켜 버린다. 즉 부정적인 인물의 내력을 비워두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수단을 봉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의 의도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켜서 인물에 대한 선행적 진술이 진실임을 확인하게 한다. 그러므로 요약적 진술을 통한 정보의 부족, 내러티브의 불균형은 부정적인 인물의 기원에 대한 재현할 수 없는 간극을 보여주는 언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염상섭 소설에서 편집적인 진술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부재, 설명의 공백은 작품의 내적 인과성을 저하시키고 내러티브의 불완전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한정하는 형식이자 내러티브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보충하는 언어적인 환원이라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이러한 의도적인 내러티브의 불균형은『광분』의 변원량이나 숙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원채 변원량(卞元良)이란 위인이 능글능글해서 못마땅하게 보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편이 다 설면설면하고 냉랭하였다.

변원량은 왜 올라왔는지 알 수 없다. 원래 거간꾼이나 천량만량판으로만 돌아다니는 위인같이 보이기도 하지마는 숙정이 본가에서 망해들어가는 판에 일을 보아준답시고 하고 삼만 원 돈이나 동티를 내어서 인천 미두판에 풀을 수어 버린 것도 원채가 배짱이 크고 남의 것이 무서운 줄을 모를 뿐 아니라 일확천금의 투기적 성질이 많기 때문이다.¹²⁾

변원량은 숙정의 친정 쪽 인물로만 제시될 뿐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적 진술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진술에도

12) 염상섭, 『광분』, 프레스21, 1996, 67면.

불구하고 숙정이 변원량을 좋아하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 변원량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변원량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축약적인 진술은 인물됨에 대해 서술자가 편집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인물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불균형은 변원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와 같은 편집적인 진술은 인물에 대한 선행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변원량이라는 인물이 악한일 수밖에 없는 내적 인과성은 공백으로 남은 채 원초적인 이미지만 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성과 단절된 인물의 부정성은 인물 그 자체에서 기원한 부정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것은 인물의 부정성이 원형적이자 태생적인 것으로 한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변원량과 숙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의 부재, 의도적인 공백도 변원량과 숙정이 불륜을 저지르며 살인을 공모하는 사이로 발전한다는 내러티브를 통해 보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생각하면 숙정과 변원량이라는 그렇지 못한 관계라 하겠으나 숙정이 민씨 집으로 들어온 뒤에는, 아니 그렇게 말하느보다는 숙정이 성적(性的)으로 철이 팍 박이면서부터는 피차에 밀어도 갓고 숙정은 일종의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대한 경계하는 마음과 공포심은 아주 관습이 되어서 삼십이 넘은 오늘날까지 숙정의 마음에서 뿌리가 빠지지 못한 것이다.

(중략)

숙정은 몽롱히 이런 생각도 하고 앉았다. 그러나 아무됐는지 점점 더 수상쩍어가고 무서워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면서도 웬일인지 만나기만 하면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감정이 저절로 기울어져가는 것 같아 더욱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떼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¹³⁾

숙정은 처음부터 변원량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 등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안을 드나드는 변원량을 목인하고 있었다. 숙정이 변원량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된 기원을 살펴보면 과거 숙정 집안을 몰락

13) 염상섭, 앞의 책, 68~78면 참조.

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원량이 집안의 몰락에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숙정의 집안은 가세가 기운 상태였고 당시에 숙정은 어려서 집안의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집안의 몰락을 이유로 들기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오히려 여학교 시절 변원량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변원량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변원량에 대해 숙정이 갖고 있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거부감은 숙정과 원량의 관계에 대한 초과로 작동한다. 즉 변원량에 대한 공포는 파국에 대한 선(先)진술로, 숙정의 거부감과 실제 없는 공포의 추상성은 원량의 유혹에 빠져 불륜 관계가 되고 의붓딸을 살해하는 사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숙정이 현재시점에서 갖는 공포와 거부감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감정이 소급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원량을 매개로 분출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공포라 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공포에 대한 진술을 실제화시키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자멸이 내러티브를 통해 사후적으로 보충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숙정이 변원량에게 느끼는 공포에 대한 선진술은 처음에는 내적인 인과성이 없는 진술로 단지 파국의 전조로만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포의 실체는 텍스트 상에서 재현할 수 없는 간극으로 남는데 이 간극은 과편화된 내러티브를 소급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보충된다. 따라서 재현 불가능한 간극은 소급적으로 구성된 내러티브에 의해 텍스트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무화과¹⁵⁾』에서도 이원영 가문의 필연적인 몰락을 편집적으로 진술하면서 시작한다.

14) 그러면 숙정이 변원량을 것처럼 데면데면하게 대하는 이유도 본가가 기울어지는 판에 삼만 원이란 큰돈을 뽕을 내어주어서 아주 쪼부러지게 한 것이 분하여서 그러나 하면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으나 또 그렇다고만도 할 수 없다. 그 사실만큼은 벌써 십사육 년 전 일이니 숙정은 서울을 올라와 있어서 숙명여자고보를 다닐 때라 집안사에 대하여는 무관심도 하거니와 사실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도 못하였었다. 그뿐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변원량은 삼만 원 바람에 인천으로 청주로 서울로 불뿔이 나게 오르내리기는 하였지만(67)서울에다 침치기를 하여놓았던 관계로 한때는 숙정도 그 집에서 숙식을 하고 학교에 다녔던 것이다.

염상섭, 앞의 책, 67면.

15) 염상섭, 『무화과』, 동아출판사, 1995.

……이원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이 삼익사사건 때문이었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거기다가 김동국(金東局)이 사건이라는 것이 얼친 데 덮쳐서, 한참 동안은 이원영이라는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삼익사사건이라는 것은 ……조부가 재산을 아들 정모에게 상속하지 않고 외(獨)손자인 원영에게 물려준 데에 원인된 것이지마는 직접 원인은 삼익사를 누구에게 준다는 유언이 없이 죽은데서 시작된 것이었다. …… 어쨌든 유산을 아들에게 빼앗긴 정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정모를 에워싸고 충동이는 축들이 곁몸이 달아서 날뛰노라니, 세상을 짝자그르하게 만들던 삼익사사건이라는 것이 생겼던 것이다. …… 신문사 ‘거간’이 하나 나타났다. 삼만 원이 나왔다. 이사가 되었다. ……직업이 생겼다. 돈 쓰는 직업이다. … 부자끼리 재판질한다는 후레자식 소리가 쪽 들어가고 그 재산이 아버에게로 갔으면 계집값, 술값, 아편값으로 녹아버릴 것을 아들이 지냈기에 유리한 사회사업에 쓴다고 칭송이 자자 하였다.¹⁶⁾

이의관 사망 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요약적으로 제시한 위 인용문은 자세한 설명은 부족하지만 핵심적인 문제가 잘 기술되어 있다. 이의관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타락한 아들 이정모를 제치고 손자 이원영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것이 현재 사건의 발단이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영이 신문사를 매수한 시점에서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것이다. 집안의 몰락을 예견한 이의관은 재산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아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상속 순서를 바꾸었다. 그런데 재산을 위한 이의관의 선택은 사건에 내재한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몰락을 가속화시킨다.

아버지 대신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원영은 육친인 아버지와 반목하는 상황에 처하여 각종 추문과 재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경영난에 처한 신문사를 사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시금석”을 삼으려 했으나 이 신문사가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동한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의관의 유언은 집안의 몰락을 재촉하며 아들과 손자를 비롯한 가족 전체에게 심각한 손실과 회복할 수 없는 타

16) 염상섭, 앞의 책, 57~59면.

격을 입히게 된다.

아들의 “계집값, 술값, 아편값”과 손자의 “돈 쓰는 직업-사회사업”이라는 진술은 등가를 이루며 몰락을 암시하는 언표행위로 작동한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러한 요약적인 선(先)진술은 과편화된 내러티브를 소급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결국 작품말미에서 진실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축약적인 선(先)진술은 단순히 서술자에 의한 설명적 요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편집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술이 실현되기 위해 사건이나 인물의 내러티브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텍스트적 초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이의관이 집안의 몰락을 막기 위해 상속을 조정했다는 작품 초반의 진술은 이미 집안의 몰락이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내러티브는 몰락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위해 현재의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몰락의 개연성을 확보한다. 집안의 필연적인 몰락은 과편화된 내러티브들로 보충되어 텍스트로 환원되는데 이것은 죽어서도 자식과 재산을 통제하려는 이의관의 돈이 완전히 소멸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이의관의 재산은 마치 유령처럼 인물과 사건의 배후에서 작동하는데 이러한 재현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힘을 내러티브에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편집적인 진술과 소급적인 재구성의 방식이 사용되는 것이다.

3. 세계의 진실과 픽션 속의 진리

「해바라기¹⁷⁾」는 김우영과 나혜석의 결혼이라는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창작된 소설로 동경 유학생 출신인 신여성 영희와 총독부 촉탁기사 순택의 결혼식과 신혼여행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소설은 죽은 전 약혼자 최승구의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나혜석의 파격적인 행보를 소설 속에 재현한 것으로 새신부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심리와 이를 받아들이는 남편의 심리 변화를 다루고 있다.

17) 염상섭, 「해바라기」, 『염상섭 전집 1』, 민음사, 1987.

「홍군도 역시 마음편히 조섭만잘하엿드면 그러케쉽게는 아니죽엿슬셀……약혼한처녀가 잇섯드라는데 일본서 이리나올새부터 그지만 그넷처녀가 잠간 단여간뒤로는 아주 덧쳐버려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졌섯지요……아무턴지 그런병은 심로를하면 더한게애요」

…… 영희는 서기의말을듯고 가슴이 뜰금하였다.

얼마라도 살수가잇섯든것을 **자기새문에 수가 주렀다는생각은 벌써부터 영희에게 업지안엿섯다.** 그러나 지금 보도듯도못하든 이사람에게 수삼이는 그사랑하는 사람새문에 그아버니는 수삼이새문에 제수를 다 맞치지 못하엿다는 소리를 들을제 그장본인이 자기인것을 알고하는말인지 모르고하는말인지 모르지만, 어셔튼지 가슴의상처를 견양을하고 꼭찌르는것갓지 안을수업섯다.¹⁸⁾(강조 인용자)

이 작품은 새신부인 영희에 의해 계획된 신혼여행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촉발하는데서 시작한다. 실제 신혼 여행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작품의 극적인 효과는 배가되고 신혼여행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하는 신랑과 의뭉스럽게 신혼 여행지를 숨기는 신부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지연된 여행의 비밀은 목포에 도착하면서 밝혀지는데 영희는 전 약혼자인 수삼의 무덤을 찾아 가서 비석을 세워주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새신부가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위를 한 표면적 이유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약혼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남편인 순택의 사랑을 시험하고 죽은 전 약혼자에 대한 사랑의 추억과 이별하려는 낭만적인 의도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영희가 비밀로 한 것은 신혼 여행지와 여행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삼의 죽음까지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 영희의 행위는 비정상적이면서 이기적인 행위가 된다. 영희의 애도행위는 수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숨기고 현재 남편을 이용하여 전 약혼자의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떨쳐버리려는 이중적인 이기심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 염상섭, 앞의 책, 165~166면.

영희가 남편을 속이면서 죽은 약혼자의 무덤을 신혼여행지로 삼아 찾아간 행위는 비상식적이며 죄책감과 부채의식에 의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의도가 작품 안에서 논리적으로 구축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신혼여행을 전 약혼자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는 것으로 맞바꾸려는 행위는 약혼자의 죽음에 대한 부채의식과 죄책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추동하는 인물의 내면이 생성하는 인과성의 모순과 왜곡은 파편적인 내러티브를 소급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텍스트로 환원될 수 있다.

내러티브의 비논리적인 왜곡은 결국 작품 내에서 보충되어야 하는데 「해바라기」 역시 지연된 설명과 파편화된 내러티브를 통해 소급적으로 구성되어 보여 진다. 작품의 비정상적인 내러티브가 생성하는 인과성의 모순과 왜곡에 대해서 소설적 개연성¹⁹⁾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존인물인 나혜석의 실제 행위(김우영과 결혼하면서 신혼여행으로 죽은 약혼자의 무덤에 가서 비석을 세우는 것)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해바라기」는 잘 알려진 대로 나혜석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²⁰⁾로 하여 쓰여 졌기 때문에 나혜석을 재현한 인물인 영희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실존 인물의 실제 행위 안에서 리얼리티를 확보하면서 복잡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9)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즉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보편적인 것을 말한다’ 함은 다시 말해 이러한 성질의 인간을 개연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것을 말하거나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사건은 불의에, 그리고 상호간의 인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사건은 이와 같이 발생할 때 저절로 또는 우연히 발생할 때보다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도에 의하여 일어난 것 같아 보일 때 가장 놀랍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62~66면 참조.

20)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66면.

……명량한 심리적 묘사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소설은 마침내 근대적 소설로 발돋움한 것이다. ……그만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세계를 그린다는 조건이 거기엔 있었다. 모델 소설이 아니었던들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염상섭만이 제일 깊이 알고 있는 나혜석의 마음 속을 모델로 한 소설인 만큼, 「해바라기」는 염상섭이 철저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세계였다. 거기에 관해서만은, 장본인 두 사람보다 일층 깊이 구석구석까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작가는 서 있었던 것이다.²¹⁾

나혜석의 경우처럼 실제 인물²²⁾을 모델로 소설을 창작하는 경우 실제 인물의 리얼리티가 개연성 자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혼한 새 신부가 신혼 여행지와 신혼여행의 목적을 비밀로 하면서 현 남편을 데리고 전 약혼자의 무덤을 찾아가는 행위의 심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현실적인 일이 소설 속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묘사로만 표현할 수 없는 내적 인과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근대 리얼리즘 소설에서 비정상적인 내러티브를 실제라는 이유로 진실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러티브의 공백이나 왜곡이 실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묘사보다 더 실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인물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러티브 안에서 인과성을 확보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재현인 허구 세계의 존재 양상은 단순히 현실의 리얼리즘적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적인 인과성 안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영희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작품 내적인 인과성 안에서 개연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혜석의 실제 행위를 재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얼리티와는 전혀 다른 층위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인물의 행

21) 김윤식, 앞의 책, 275면 참조.

22) ……비극의 경우는 기존 인명(既存人名)에 집착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것의 가능성은 아직 믿지 않지만 일어난 것은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64면

위와 동기는 현실세계에서나 의미를 가질 뿐 소설세계에서 재현되는 것은 작가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염상섭이 아무리 나혜석을 잘 알고 그의 심리에 대해 본인보다 더 깊이 파악하여 묘사했다고 해도 소설 속에 재현된 인물과 사건은 허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즉 나혜석의 실제 행위와 심리가 현실에서 갖는 의미로 소설 속에 재현된 인물을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제 인물과 재현된 인물의 실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 속에 재현된 인물이나 사건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다른 고유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실제와 재현 사이의 간극은 현실세계와 허구세계의 근원적인 차이로 해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구의 세계는 만들어진 세계이자 현실 세계를 재현한 세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비일관적²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허구 작품을 대할 때 독자와 작가 사이에 상호 “협약”이 필요하다.

……미국의 철학자 루이스는 …… ‘픽션 속의 진리’라는 흥미로운 문제에 접근……픽션 작품을 읽을 때 작가와 독자 사이에는 이야기된 사건들이 진실이라는 환상을 양자 모두 존중할 것이라는 협약이 맺어진다. 하지만 만약 작가가 ……허구적 세계의 ‘진실’을, 픽션 속의 진실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략… 히치콕의 <무대 공포증stage fright>의 시작 부분에서 ‘가짜 플래시백’에 의해 촉발되는 비명을 떠올려보라. …… 비명을 촉발한 것은 히치콕이 여기서 내러티브적 영화의 근본 법칙 중 하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플래시백으로 직접 보이는 것은 영화의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는 법칙이 그것이다. ……

……“픽션의 그러한 반복은 왜 자체 속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픽션이 진실이라고 믿는] 척 가장하는 것과 가장하는 척 가장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가장하는 척 가장하는 것 또는 진리를 가장한 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징적 공간 내부에서만이다. 따라서 루이스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상징적인 공간 자체의 ‘진실한 거짓말’에 관한 것이다.²⁴⁾

23) 미우라 도시히코, 앞의 책, 40면.

24) 슬라보예 지젝, 『헤겔 레스토랑』, 앞의 책, 99~100면 재인용.

소설이나 영화 같은 허구 작품을 접할 때 우리는 그 세계가 현실이 아님을 알지만 현실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작품을 감상한다. 현실이라고 가정된 허구 세계는 현실적으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리얼리즘적 묘사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픽션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현실세계의 진실과 허구적 진리 즉 사실적 진실과 픽션의 진리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소설적 진리는 실제의 충실한 재현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 내적인 참됨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현실세계의 인물이나 사건이 생성하는 진실의 보편적인 특성과는 다른 허구적 진리가 추구하는 미학적인 의미화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염상섭의 작품을 대상으로 근대소설의 내러티브가 구축하는 언어적 형식과 픽션의 진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텍스트가 세계를 재현할 때 필연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 공백은 보여주기(showing) 기법을 통해 재현의 장으로 환원될 수 있다. 보여주기는 언어의 내속적인 형식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소설의 내러티브에서 정보의 부재, 알 수 없는 생략과 편집 등으로 나타난다. 작품상에서 보여주기는 소설의 사실적 묘사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생략과 공백에서 발생하는 서사의 균열이나 모순을 포괄하는 방법이자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축하는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염상섭 작품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인물의 본질에 대한 보여주기와 선(先)진술에서 찾을 수 있다. 비유적인 진술은 내러티브의 진행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발화에 의해 소급적으로 진실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진술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리얼리즘적 재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후적으로 구성된 내러티브

에 의해 지탱된다. 현재의 응시는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서 소급된 것이며 이러한 내러티브의 비선형적 왜곡은 파편화된 내러티브를 개연적이고 인과적인 흐름의 구조 속으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급성은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요약적 진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편집적인 진술은 서술자에 의한 의도적인 공백으로 부정적인 인물의 기원에 대한 재현할 수 없는 간극을 보여주는 언어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축약적인 선(先)진술은 단순히 서술자에 의한 설명적 요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편집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술이 실현되기 위해 사건이나 인물의 내러티브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텍스트적 초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인물과 사건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재현 불가능한 초과는 편집적인 진술과 소급적인 재구성의 형식으로 보충된다. 따라서 염상섭 소설에서 편집적인 진술은 정보의 부재, 설명의 공백으로 인한 내러티브의 불완전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한정하는 형식이자 내러티브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보충하는 언어적인 환원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의 행위나 내면이 생성하는 인과성의 모순과 왜곡은 파편적인 내러티브를 소급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텍스트로 환원된다. 내러티브의 비논리적인 왜곡은 작품 내에서 보충되어야 하는데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는 소설은 실제 인물의 리얼리티를 내세워 개연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설 작품에서는 내러티브는 실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로만 의미화 할 수 없는 내적 인과성이 요구된다. 즉 실제인물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러티브 안에서 인과성을 확보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재현인 허구 세계의 존재 양상은 단순히 현실의 리얼리즘적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적인 인과성 안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 인물의 행위와 동기는 현실세계에서나 의미를 가질 뿐 소설세계에서 재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와 재현 사이의 간극은 현실세계와 허구세계의 근

원적인 차이로 해명할 수 있다. 현실이라고 가정된 허구 세계는 현실적으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작품 내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리얼리즘적 묘사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픽션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세계의 진실과 허구적 진리, 사실적 진실과 픽션의 진리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소설적 진리는 실제의 충실한 재현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 내적인 참됨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Abstract]

The Narrative of Modern Novels and Truth in Fiction

-Focusing on Unrepresentability and Technique of Showing

Jo, Mi-hee(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Yeom Sang-seop's work with a showing technique to show how the narratives of modern novels can access irreproducible voids. This can be sai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the narratives reproduced by language and the non-reproducibility to the form of language.

When text reproduces the world, there is inevitably a space that cannot be reproduced. This gap is reduced to the field of reproduction through the showing technique. Showing is a way of drawing out the internal form of language, and appears as a lack of information, unknown omission, and editing in the narrative of the novel. Showing in the work is not limited to the realistic description of the novel, but a method that encompasses the cracks or contradictions of narratives that occur in the omission and gap of narratives, and an extended concept that implies why such contradictions are bound to occur.

One of the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Yeom Sang-seop's work can be found in the presentation and pre-statement of the nature of the character. The figurative statement is retrospectively confirmed to be true by the actions and utterances of the characters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narrative. In order for these statements to be tru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ap that cannot be expressed by realism reproduction, which is supported by post-constructed narratives. This retrospective can also be found in summary statements of negative characters. Editorial statements about characters or events are intentional gaps,

which can be said to be a linguistic form that shows an irreparable gap in the origin of negative characters. Therefore, in Yeom Sang-seop's novel, the absence of information and the absence of explanation from editorial statements do not reduce the internal causality of the work and deepen the incompleteness of the narrative, but rather is a form that intentionally limits the character's characteristics and a linguistic reduction. The contradiction and distortion of the causality created by the character's actions or the inner side of the character are also reduced to text by retroactively reconstructing fragmentary narratives.

The existence of the fictional world, which is a reproduction of the real world, is not simply aimed at the realism of reality, but is built within the internal causality of the work. It can be said that the actions and motives of real characters only have meaning in the real world, but what is reproduced in the novel world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is void between reality and reprodu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fictional worl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not formed by a realistic description of a real person or event, but should be supplemented only by fiction. This allows us to recogniz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eal world truth and the fictional truth, that is, the factual truth and the truth of fiction.

Key words : Yeom Sang-seop, Modern, Show, Fiction, Truth, Narrative, Void

[참고문헌]

■ 기본자료

염상섭, 『염상섭전집』1~12, 민음사, 1987

염상섭, 『광분』, 프레스21, 1996

염상섭, 『무화과』, 동아출판사, 1995

■ 단행본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경수,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일조각, 2008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서영채, 『사랑의문법-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데이비드 로지, 김경수 외 역, 『소설의 기교』, 역락, 2010

딜런 에반스, 김종주 외 역, 『라캉정신분석사전』, 인간사랑, 2004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아영철 역,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2006

미우라 도시히코, 박철은 역, 『허구세계의 존재론 : 분석철학, '픽션'에 대해 묻고 답하다』, 그린비, 2013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역,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1997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슬라보예 지젝, 김서영 역, 『시차적 관점』, 마티, 2006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역,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2002

자크 라캉, 맹정현 외 역, 『자크 라캉 세미나 11-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 새물결, 2008

켄달 L. 윌튼, 양만정 역, 『미메시스:믿는 체하기로서의 예술』, 북코리아, 2019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경수, 「염상섭의 통속소설 연구」, 『서강어문』11권, 1995

김세화, 「픽션 내에서의 참에 대한 루이스의 분석에 대한 비판」, 『미학』29집, 2000

조미희,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희생의 의미 연구-〈해바라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58집, 2015

조미희, 「염상섭 작품에 나타난 여성 복장의 가장성과 여성인식의 부정성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80집, 2020

차원현, 「유명론적 세계 이해와 개체성의 윤리학」, 민족문화사연구』22호, 2003